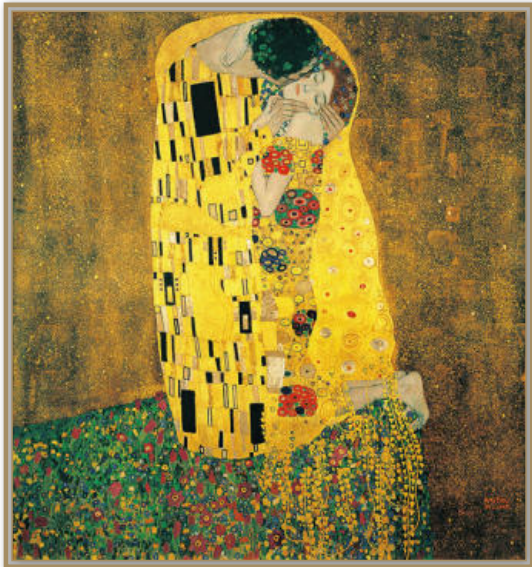


■ 그림 여행



키스 (The Kiss c. 1907-1908)

귀스타브 클림트 (Gustav Klimt 1862-1918)

캔버스에 유채, 180 x 180 cm,  
오스트리아 벨베데어 미술관

꽃이 만발한 언덕, 혹은 낭떠러지 위에서 남녀가 포옹하며 키스하고 있다. 키스를 하려는 순간인지도 모른다. 남자가 입고 있는 망토 같은 옷에는 직사각형 남성적 패턴의 무늬가 가득하고, 무릎을 꿇은 여자의 옷은 동글동글한 여성적 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남자의 머리카락을 두르고 있는 잎새 빙글은 여자의 머리카락 위에 꽃으로 연결되어 발 밑까지 쏟아진다. 여자의 얼굴을 돌려 키스하려는 남자는 눈을 감고 온몸을 내맡기고 있는 여자와 함께 황금빛으로 녹아 들어 들은 한몸이 되어 버렸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순간에 황금빛 비가 내린다. 마술적인 키스의 장면이다.

‘키스’ 는 오스트리아 상징주의 화가 귀스타브 클림트

의 그림이다. 화려한 색채와 반짝이는 금박, 정사각형 화면을 가득 메운 인물의 구도, 선정적인 제목까지 그림의 모든 것이 관객을 압도한다. 클림트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오스트리아 벨베데어 성에 국보로 보관되어 절대 외국으로 내보내지 않는다고 들었다. 그러므로 이 그림을 실제로 보려면 오스트리아로 가야 한다. 실제로 그곳까지 가서 그림을 본 지인의 말에 의하면 황금비가 쏟아지는 듯한 기가 막힌 화면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한다.

금 세공업자 집안에서 태어난 클림트는 어려서부터 금으로 작업하는 것에 익숙했고, 후에 이탈리아 라벤나로 여행했을 때 접했던 비잔틴 금박 모자이크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 후 ‘황금 시기’라 불리는 작업 시기에 금박과 은박을 입혀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 주인공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추측과 해석을 했다. 여자의 머리와 남자의 머리를 연결해 주는 넝쿨 앞으로 미루어 그리스 신화 속의 아폴로와 다르네를 그렸다는 설도 있고, 어딘지 투명하게 사라지는 듯한 여자의 모습으로 미루어 지하 세계에서 유리디체를 찾아 땅 위로 올라오던 오르페우스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뒤돌아 유리디체에게 키스하는 순간을 그렸다는 주장도 있다. 어느 주장이 맞는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이 키스의 순간은 영원히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과 겹쳐진다. 사랑의 절정이 되어야 할 순간이 비극적인 이별을 내포하고 있다는 암시가 슬프지만 어찌면 그래서 이 ‘키스’가 더 황홀하게 보이는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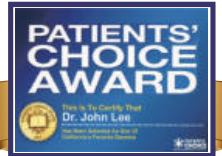
사랑이라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일 순위로 떠올리는 그림이기도 하고, 복제된 이미지를 하도 봐서 이미 보았다는 느낌이 자주 드는 그림이지만 언젠가는 오스트리아로 날아가 황금비가 쏟아진다는 실물 그림을 꼭 한 번 직접 보고 싶다.

《김동백》

www.fullertonsmile.com

A' DENTISTRY

나에게  
꼭 맞는 틀니가  
있는 곳!



- 틀니전문
- 틀니수리  
1-2시간안에 가능
- 자체 랩보유
- 임플란트 틀니



John S. Lee, D.M.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B.S.  
Tuff Dental School, D.M.D.

714.449.1686

536 W Commonwealth Ave. #A, Fullerton, CA 92832



www.daebaksigns.com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베너, 메뉴보드, 광고, 전단, 포스터, 명함, 박스간판, 채널레터, 폼레터, 창문사인, 전시사인, 판촉물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

사장님을 위한 수만 가지 대박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 최고 광고회사와 디자인 교수 출신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대박사인에서 직접 제작했습니다.

사장님의  
대박을 위한  
전품목

대박 SALE

쉬! 가격은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세요.  
대박입니다!

대박사인

T. 323.641.7907  
1313 Fedora St., LA CA 90006